평생 잊지못할 감동이 있는 골프장
함평 다이너스티 컨트리 클럽
예약 : www.hpdynasty.co.kr 080)320-7700

FA 손익 '보상선수'가 변수

최준석 롯데 복귀 등 6명 유니폼 갈아 입고 종료
보호선수 외 한명 보상 규정 '옥석 가리기' 중요
원 소속 구단 협상 마감…윤석민 미국행 본격화

말 많고 탈 많았던 프로야구 FA(자유계약선수) 시장이 마감됐다.

롯데가 지난 13일 포수 강민호를 75억원에 잔류시키며 막이 오른 FA 시장이 18일 최준석(4년 35억원)의 롯데 복귀와 함께 막을 내렸다.

역대 최대인 500억원이 넘는 돈이 풀린 돈잔치에 FA를 신청한 16명의 선수 가운데 이대형(KIA), 이용규·정근우(이상 한화), 손시헌·이종욱(이상 NC), 최준석(롯데) 등 6명은 유니폼을 갈아입었다.

FA 시장은 막이 내렸지만 보상선수와 내부 단속이라는 FA 숙제가 남았다.

◇손익계산? 보상선수가 변수

지난해 통큰 배팅을 하며 FA 시장의 큰손이 됐던 KIA는 이번 시장에서도 화제의 중심이었다. 이용규가 요란하게 한화로 떠났고 KIA는 그 공백을 메우기 위해 이대형을 부랴부랴 고향으로 불러들이면서 FA 시장을 들썩이게 했다. 이대형에게 투자한 금액은 4년 24억.

67억의 국가대표 이용규가 객관적인 전력에서는 한수 앞서있다. 특히 공격은 이용규가 0.295의 통산 타율을 기록하며 이대형(0.261)을 압도한다. 수비도 안정성에서 이용규의 윈.

24억의 이대형은 '슈퍼 소닉'이라는 별명처럼 주력이 가장 눈길을 끄는 선수다. 2010년에는 66차례 베이스를 훔치며 도루왕에 오르기도 하는 등 남다른 발을 과시하고 있다.

이용규에게는 어깨수술로 재활 중이라는 점, 이대형은 최근 하락세가 두드려졌다는 점이 앞으로의 전망에 걸림돌.

KIA 입장에서는 이용규의 롤과 비슷하고, 지역 출신의 선수라는 점에서 이대형은 아쉬운 대로 최선의 선택이었다. 하지만 FA인플레이션으로 24억이라는 만만치 않은 금액이 투입됐고 보상선수도 계산에 넣어야 한다.

KIA는 한화로부터 보상선수를 영입할 수 있고 또 LG에게 보상선수를 내줘야 한다. 한화의 얇은 선수층에서 옥석 고르기와 전력 손실을 최소화 할 수 있는 꼼꼼한 20인 명단 작성이 손익계산의 주요 변수가 될 전망이다.

◇FA 후폭풍, 선수단 마음잡기

과정에서 잡음이 있기는 했지만 결론적으로 KIA는 '집안 단속'에 실패하면서 외부영입 카드를 꺼내들었다.

이번 FA를 놓고 선수단에는 이상기류가 돌고 있다. 계속적인 FA 영입으로 기존 선수들이 홀대를 받고 있다는 인식과 함께 과열된 FA금액에 따른 상대적인 박탈감이 이상기류를 만들고 있다.

여기에 20인 보호 선수 명단 언저리에 있는 선수들은 보상선수로 팀을 옮겨야 할지 모른다는 심리적인 압박감을 느끼고 있다.

17일 오키나와 캠프의 화제는 단연 이대형의 영입과 금액이었다. 이번 캠프는 주전급 선수들보다는 유망주 위주로 꾸려졌다. 치열하게 내부 경쟁을 하고 있는 선수들은 각자의 손익을 따지고 보상선수에 대한 윤곽을 그리느라 분주했다.

KIA도 이를 고민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그동안 FA 영입으로 큰 재미를 보질 못했다는 점과 선수단 사기·분위기, 내부 육성 등을 고려해 외부 영입을 놓고 고심을 했지만 결국 FA 시장에 뛰어들었다.

연봉협상에도 영향이 미칠 전망이다. 올 시즌이 끝나고 KIA는 연봉 칼바람을 예고했다. 8위까지의 추락으로 인한 전체적인 연봉 삭감과 함께 개인 성적에 따른 계산으로 연봉 한파는 불가피 하다. 하지만 지난해 김주찬에 이어 올 시즌 이대형까지 FA 대박을 맞자 선수단에는 '외부에는 아낌없이 몇 십억을 쓰면서 내부 대접은 야박하다'는 인식이 퍼졌다.

삭감 대상자는 물론 인상 대상자들의 연봉협상 과정도 수월치 않을 전망이다. 나지완·신종길 등은 제 몫 이상을 해내며 인상대상자로 꼽히지만 8위라는 성적에 따라 지난 시즌 인상자들과는 다른 잣대가 적용될 예정이다.

◇FA 최대어 윤석민, 미국행 본격화

이용규로 홍역을 치른 KIA에게 윤석민의 미국진출은 반가운(?) 일이다. 윤석민이 국내 잔류를 선택했다면 유례없는 영입 전쟁과 배팅이 이뤄졌을 것이 볼 보듯 뻔하다. KIA로서는 머리 아픈 고민이 하나 준 셈이다.

16일을 기점으로 윤석민의 미국진출이 본격화 됐다. 원소속구단과의 우선협상 기간이 끝나면서 소문만 무성했던 관심 구단들이 영입 작업에 들어갔다. 협상테이블에 차려지면 빅리그 입성의 관건인 '몸값, 보장 자리'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만큼 윤석민의 2014시즌이 구체적으로 그려지게 된다.

에이전트인 보라스 사단에 추신수(신시내티)와 엘스버리(보스턴) 등의 대형 계약이 기다리고 있는 만큼 윤석민의 미국행은 앞서 빠르게 추진 될 전망이다.

미국진출이 가시화 되고 있지만 국내 팀들의 눈길도 여전하다. 원소속구단 우선 협상이 끝나면서 국내 팀들의 러브콜도 있었다. 미국행이 확정되기 전까지 윤석민도 KIA에게는 남겨진 FA 숙제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잘할 수 있지?

축구 국가대표팀 선수들이 17일(현지시간)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에 위치한 왕립 두바이 스포츠 콤플렉스내 실내 풋살경기장에서 회복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이날 야외에서 예정됐던 훈련은 강한 모래바람으로 인해 실내훈련으로 대체됐다. 대표팀은 현지시간으로 19일 오후 6시(한국시간 밤 11시) 두바이의 자빌 스타디움에서 러시아(FIFA 랭킹 19위)와 평가전을 치른다. /연합뉴스

중동 '모래바람' 뚫어야 산다

홍명보號 오늘밤 11시 러시아전…미세먼지, 시야 가려 최대 난적

러시아를 상대로 3연승을 거두고 올해 '유종의 미'를 거두려는 축구 대표팀의 앞길에 모래바람이라는 예상치 못한 장애물이 나타났다.

홍명보 감독이 이끄는 대표팀은 17일과 18일(이하 현지시간)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의 왕립 두바이 스포츠 콤플렉스에서 훈련을 가졌다.

당초 훈련은 야외 축구장에서 시작할 예정이었지만 느닷없이 모랫바람이 거세게 몰아친 탓에 지체됐다. 입을 열면 모래가 씹힐 정도로 농도가 짙은 모랫바람이었다.

눈을 제대로 뜨지 못할 정도로 바람의 세기도 강했다. 골대 앞에 서면 반대쪽 골문이 다소 흐릿하게 보일 정도로 공기가 혼탁했다.

모랫바람이 좀처럼 그치지 않자 대표팀은 축구장옆 실내 풋살경기장으로 자리를 옮길 수밖에 없었다.

현지 교민들에 따르면 대표팀이 경험한 모래바람은 '모래폭풍'이라고 불러도 될 정도로 강한 것이었다. 사막 한가운데 세워진 도시인 두바이에서는 바람이 많이 부는 환절기에 모래바람이 불곤 한다.

이달 들어 계절이 겨울로 바뀌어 가면서 모래바람이 부는 빈도가 잦아지고 있다는 게 교민들의 설명이다.

대표팀은 당초 높은 기온이 이번 원정길의 난적이 될 것으로 봤지만 훈련이 이뤄지는 오후 늦은 시간 두바이 기온은 섭씨 25도 정도에 불과해 무리가 없는 수준이다. 대신 예상치 못한 모래바람이 갈 길 바쁜 대표팀의 발목을 잡는 모양새다.

러시아는 일찌감치 두바이에 도착해 15일 세르비아와 평가전을 치러 이미 현지 적응을 마친 상태다.

황보관(48) 대한축구협회 기술위원장은 "과거에는 경기장이 열악해 비 오는 날 배수가 되지 않는 등 그라운드 상태가 좋지 않아 실내에서 훈련한 적이 있다"면서 "하지만 근래 들어 대표팀이 실내에서 훈련하는 것을 보기는 처음"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표팀은 19일 밤 11시(한국시간) 두바이 자빌 스타디움에서 러시아와 평가전을 치른다.

/연합뉴스

아깝다! 女 계주

쇼트트랙, 준결승 '세계 新' 기록하고도 결승전 銀

한국 여자 쇼트트랙 대표팀이 올 시즌 월드컵 시리즈에서 처음으로 3000m 계주 금메달을 중국에 내줬다.

심석희(16·서울 세화여고), 박승희(21·화성시청), 김아랑(18·전주제일고), 조해리(27·고양시청)가 나선 한국은 17일(현지시간) 러시아 콜롬나에서 열린 2013-2014 국제 빙상경기연맹(ISU) 쇼트트랙 월드컵 4차 대회 여자 3000m 계주 결승에서 4분9초794의 기록으로 중국(4분9초410)에 이어 아쉽게 2위에 자리했다.

한국 여자 계주팀은 올 시즌 앞선 3차례 월드컵에서 3000m 계주 금메달을 놓친 적이 없으나 마지막 대회에서 중국에 정상을 빼앗겼다.

이날 준결승에서 '태극낭자'들은 4분6초215의 세계신기록을 작성해 기세를 올렸다. 종전 기록은 지난해 12월 월드컵 4차 대회 파이널B(순위결정전)에서 심석희-김민정-조해리-박승희가 남긴 4분6초366이었다.

전날 1500m에서 우승하면서 10개 대회 연속 금메달 행진을 이어간 '차세대 여왕' 심석희는 대회 2관왕을 노렸으나 뜻을 이루지 못했다.

김아랑이 유일하게 1000m 결승에 진출해 1분30초615의 기록으로 아리아나 폰타나(이탈리아·1분30초249)에 이어 2위에 올라 자존심을 살렸다.

/연합뉴스

권수현·홍태곤 '광주FC 새얼굴'

아주대 미드필더 권수현(22)이 자유선발로 광주FC 유니폼을 입는다.

대한축구 유망주 18명(클래식 15명, 챌린지 3명)이 자유선발 선수로 K리그 선택을 받았다. 광주는 아주대의 공격형 미드필더 권수현(22)을 자유선발로 낙점했다.

자유선발 선수는 계약기간 5년에 계약금 최고 1억5000만원이며, 연봉은 3600만원이다.

권수현은 울산 학성초-학성중-학성고를 거쳐 올 시즌 아주대 주장으로 활약한 선수. 178㎝·70㎏로 폭넓은 패스와 정확하고 강한 킥이 장점이다.

권수현은 "광주가 클래식에 있을 때도 그렇고 올 시즌에도 종종 경기를 봤다. 상대보다 많이 뛰고 도움을 주는 플레이가 자신 있는데 프로에서 많이 배우고 좋은 활약을 하고 싶다. 기대가 된다"고 소감을 밝혔다.

2011년 광주의 우선지명을 받았던 홍익대 미드필더 홍태곤(21)도 첫 대졸 유스 선수로 2014 시즌 고향으로 복귀한다. 목포 연동초와 제일중을 졸업한 홍태곤은 광주 유스팀인 금호고를 거쳤으며 2011 광주의 우선 지명을 받은 선수다.

182㎝·78㎏의 홍태곤은 "금호고를 나와서 졸업 유스로 처음으로 프로에 가는 거라서 감회가 새롭고 잘해야겠다는 각오도 남다르다. 다른 선수보다 뛰는 양도 많고 허리싸움, 몸싸움에서 자신 있다. 광주의 경기도 꼼꼼히 지켜보면서 준비를 했다"고 자신감을 보였다.

권수현 홍태곤

대학시절 적으로 상대했던 권수현과의 만남도 기대된다.

홍태곤은 "권수현과는 얼마 전 대학 왕중왕전 16강전에서 만나기도 했는데, 같은 리그에 포함돼서 공격형 미드필더와 수비형 미드필더로 맞대결을 해왔다. 잘 아는 선수인데 광주에서 함께 좋은 활약을 하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광주는 또 우선 지명으로 신재희(전주대), 이상혁(광주대), 이평강(연세대), 장성현(원광대), 명대훈(건국대), 이용준(동강대), 김익희(조선대), 박수영(남부대), 김대웅(명지대) 등 졸업을 앞둔 9명의 금호고 선수를 우선 지명으로 선발했다. 이들은 대학에 진학한 뒤 광주에서 프로에 데뷔하게 된다.

/김여울기자 wool@